

번호: PO-EP-036					
제 목	우리나라 2주간 경미손상의 유병률과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valence Rates and Risk Factors of Mild Injury for Two Weeks in Korea				
저 자 및 소 속	이제숙1), 김순덕2), 이동기3), 이지성1) 1) 고려대학교 대학원 보건학협동과정, 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Jesuk Lee1), Soonduck2), Dongki Lee3), Jisung Lee1) 1)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3)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분 야	역 학 [만성질환 역학 및 건강 위험요인]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b>목적:</b> 손상은 '예방가능한' 또는 '피할수 있는' 질병부담으로 평가되고 있다. 손상관련 연구는 대부분 대형 손상 연구이지만, 경미한 손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2주간 경미손상 유병률과 위험요인, 손상의 특성, 의료이용을 분석하여 손상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p> <p><b>방법:</b> 본 연구는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중 국민건강면접자료의 손상에 관한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2주간 경미손상'을 지난 2주동안 하루이상 동통이 있거나 평소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손상으로 정의하였다. 분석방법은 Chi-squared test, Fisher's exact test와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통계분석은 SPSS(versio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p> <p><b>결과:</b> 2주간 경미손상의 유병률은 0.5%였다. 단변량 분석결과 성별, 연령, 결혼상태, 학력,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는 성별, 결혼상태, 직업이 유의하였다. 성별은 여자에 비해 남자에서 1.5배 높았고, 결혼상태는 사별에 비해 유배우에서 0.4배 높았다. 직업은 무직에 비해 군인이 13.3배로 가장 높았고, 판매종사자는 2.6배,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는 3.7배,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는 3.4배,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4.0배 높았다. 손상의 원인은 추락미끄러짐 사고가 가장 많았고, 교통운수사고 등의 순이었다. 손상의 장소는 가정 또는 주거인접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도로, 학교, 직장 등의 순이었다. 손상유형은 좌상 표재성손상이 많이 발생하였고 뼈거나 인대늘어남, 개방창 열상 등의 순이었다. 2주간 경미손상에서 의료이용은 응급치료를 받은 사람이 61.4%였고, 응급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84.3%은 의료기관을 이용하였다. 활동제한일은 10.8%였고, 침상와병은 13.1%였고, 결근결석일은 17.1%였다.</p> <p><b>결론:</b> 본 연구결과 2주간 경미사고는 대부분 가정 또는 주거인접지역에서 추락미끄러짐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향후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p>					